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10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7 호

제43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종령 예하, '불공 잘하라'는 가르침 되새기자



종조 원정 대성사의 제43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9월 8일 본산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사진은 원정기념관 추선불사

이 땅에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드리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불교총지중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제43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9월 8일 본산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 원정기념관에는 종령 범공 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서울경인교구 스승, 유가족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종조 진영 전에 헌화와 헌향 정공을 시작으로 불사를 열었다.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로 봉행된 추선불사는 개식사와 함께 종령 예하의 추선사를 시작으로 유가삼밀 의궤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이어 종조님 육성법문 청취, 종령 범어, 통리원장 우인 정사 인사말, 마지막으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회향되었다.

종령 범공 예하는 멸도절 범어를 통해 “종조님께서서는 평소 교도들에게 불공 잘할 것을 강조하셨다.”며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정진해나가자.”고 설파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추선불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

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승단과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의 육성 법문을 함께 들으며 창종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 밀교의 재도약과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종조 원정 대성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72년 12월 24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종단을 창종해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밀교의 중흥을 이끌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닦는 ‘승속동수’를 핵심으로 ‘시시불공 처처불공’을 종단의 지표로 삼아 홍포와 교화수행에 진력하다 1980년 9월 8일 열반적정의 세계로 들었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어라

제14회 불교총지중 경로법회 성료



경로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이 환하게 웃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다.

불교총지중 경로법회가 경북 청송 대명콘도에서 지난 9월 19일, 20일 1박 2일 간 성황리에 열렸다. 격년으로 개최되었던 경로법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지난 2019년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했다.

기로 스승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모인 65세 이상 교도들과 자원봉사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종령 범공 예하,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전국 스승과 교무들이 동참해 자리를 도왔다. 또 부산 정각사 다도회 회원들이 준비한 전통차와 다식 코너는 잔치집 분위기를 더했다.

종령 범공 예하는 개회식사를 통해 “전 인류적 큰 재앙인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지만 우리 보살님들은 한 분도 희생자 없이 무사히 고비를 넘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함께 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로 사람이 늙는 것은 그냥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 총지중 보살들은 불공하는 비결이 있기에 결코 일반 노인들처럼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익어가는 보살들이라 생각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멀리서 걸음해 주신 승단 스승 및 교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 좋고 물 맑은 청송에서 그간 지친 심신을 달래고 환희로운 마음으로 회향하시길 바란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로법회 1부는 전문 사회자인 박동철 MC의 유쾌한 진행으로 서도 소리꾼 단희의 ‘청춘가’를 시작으로 이미테이션 가수 현철, 세미 트롯 가수 지현의 춤과 노래로 흥겨운 한마당의 향연이 펼쳐졌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범/어

불공을 잘 드리면 마장은 건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니, 사람의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법계의 진리가 비추는 바를 따르면 될 것이다.

지 면 안 내

- 8면 밀교법장담론/ 준제진언의 수용과 범서총지집
- 9면 역삼한담/ ‘오도 일관지’의 자세
- 10면 생명살림/ 관세음보살과 생명 이야기
- 12면 특집화보/ 경로법회 사원 장기자랑

제101회 추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2년 10월 18일(수)~19일(목) 1박2일

대상 _ 불교총지중 전 스승 | 장소 _ 본산 통리원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 ⑦ 불교총전 ㉠

『불교총전』의 발행 목적은 다 음과 같습니다. 이는 머리말을 통 해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직접 설 파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경율론(經律論)이 국 역되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경권 (經卷)을 생업활동에 바쁘고 간편 을 위주로 하는 현대인이 다 읽을 수는 없으므로 모든 경전의 중요 한 부분을 뽑아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둘째, 불타의 설법은 인격의 완 성 내지는 자각성불(自覺成佛)의 길을 설시(說示)한 것이므로 인간 을 떠난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즉 생활을 떠난 불교는 있을 수 없다 는 것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다. 그 러므로 불교는 생활적이어야 하고 생활은 불교적이어야 한다. 이러 한 견지에서 모든 경론 가운데 우 리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부문별 로 분류편찬(分類編纂)하여 생활 의 지혜와 복덕이 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며,

셋째, 모든 종교들이 내세극락 (來世極樂)이나 사후천당(死後天 堂)에 치중하므로 자연히 현세는 도외시되고, (중략) 도덕적인 차원 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법으로 곧 현세에서 잘사는 길, 즉 인간답게 사는 길이 불타의 설법 가운데 무 진장으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넷째, (중략) 불타의 교법(敎法) 은 현세를 중시하고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현세를 행복하 게 다스리고, 모든 고뇌를 소멸하 여 열반에 이르는 길이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우리

들의 공통된 염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교총전』 은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 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 전 가운데서 불교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가려 뽑아 통불교적(通佛敎的)인 입장에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원 정 대성사께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 의 교과서로, 모든 불교도들에게 는 수행의 지표가 되도록 하신 것 입니다.

『불교총전』은 총기 4년(1975 년) 12월 24일 초판이 발행된 이 후 1990년까지 4쇄를 냈으며, 총 기 33년(2004년) 1월 10일에는 개 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은 초판의 『불교총전』의 내용을 원 본과 비교 검증하여 현대적 문법 에 맞도록 수정했으며, 글자의 크 기도 확대, 기존의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편집 형태를 대폭적으 로 바꾸어 교도들이 읽기 쉽게 변 화시켜 출판함으로써 경전으로서 가치를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오 늘날까지 총지종의 기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이러한 계기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자신의 생(生)의 가치를 다 시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얻는 다 면 편자는 한량없는 기쁨과 보람 을 느낄 것이며, 수행하시는 분은 이것을 바탕으로 구경에는 해탈의 큰 길이 환하게 열릴 것으로 확신 한다.” 『불교총전』 머리말

원정 대성사님 말씀 중에서

1박2일 동안 흥과 장기 뽐내며 기쁨과 즐거움 만끽



1면에서 이어짐

저녁 공양 후 펼쳐진 2부는 교도 장기자랑으로 이 어졌으며, 100분 간 웃음과 화합의 장으로 경로법회 의 절정을 이뤘다. 종단 사원 11개 팀이 출전한 장기 자랑은 한 달 여간 준비한 노래와 춤, 색소폰 연주, 가 장무도회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사원마다의 개성과 장기를 뽐내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기자랑에서 영예의 1등 총지상에는 학창시절 을 떠올리는 복장으로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를 부르며 율동을 선보인 정각사에게 돌아갔으며, 2 등 반야상에 덕화사, 3등 원력상에 혜정사가 수상 했다. 참가한 모든 사원에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화보 12면

이날 89세 최고령으로 참석한 단음사 황동분 교도 는 “처음으로 경로법회에 왔는데 얼마나 즐겁고 고마 운지 모르겠다.”며 “다음에도 꼭 참석할 수 있으면 좋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흥국사 장기자랑에 나선 송영지 각자는 “무대에서 어떻게 춤을 추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흥겨 왔다.”며, “경주 경로법회부터 세 번째 참가인데 이번 이 가장 알차고 재밌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튿날 온천욕에 이어 조식 후 회합불 공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청송=박재원, 김상미 기자

“종교 간 협력과 화합에 애써 달라”

통리원장, 문체부 정용욱 신임 종무실장 예방에 당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신임 종무실장이 지 난 9월 5일 종단 본산을 예방한 가운데 통리원 장 우인 정사는 이날 오후 2시 통리원에서 정 종 무실장과 환담을 나눴다. 자리에는 종무부장 록 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와 이상호 종무관, 조영권 종무1담당관이 배석했다.

우인 정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종교 간 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 종무실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 달라.”며 종교 문화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 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용욱 종무실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 지고 최선을 다해 종교간 소통에 귀 기울이겠 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용욱 종무실장은 서울시립대 화학공 학과를 졸업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행정 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총리실 민정 민원비서관 등 정부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으 며 올해 8월 문체부 종무실장에 임명됐다.



불교총지종

수인사 수인회 창립 10주년

2023 꽃보다 할매 할배
孝 사랑 잔치

일시 : 2023년 10월 21일(토) 11:00~13:00 장소 : 꿈트리센터 야외정원(수인사 뒷편)

후원 : 수협 2010-0819-3775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수인사급식)



신정회 각 지회, 경로법회 성금 회사 한마음으로 여법한 회향에 동참 발원

제14회 경로법회를 맞아 신정회 각 지회에서 성금을 회사했다. 각 신정회 지회를 대표해 서울경인지회 박정희 지회장, 충청전라지회 민순분 지회장, 대구경북지회 황월분 지회장,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은 경로법회 입제식 자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에게 직접 보시금을 회사하고, 효잔치의 여법한 회향을 서원했다.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신정회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하고, “오늘 보시금은 경로법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 교도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희 지회장, 황월분 지회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 류길자 지회장, 민순분 지회장

수인회 창립 10주년 기념 ‘효 잔치’ 21일 수인사, 이웃돕기 성금 전달도



포항 수인사 수인회(회장: 최형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 초청 ‘효 잔치’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꿈트 리센터 야외정원에서 개최되는 ‘꽃보다 할매 할배 효 사랑 잔치’에는 지역 어르신 500명이 초대될 예정이며, 수인회를 비롯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바르게살기위

원회 등 지역 민관을 아우르는 지원과 자원봉사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효 잔치에서는 참석자 모두에게 점심 공양과 함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2013년에 창립한 수인사 소속 자원봉사단체 수인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반찬봉사와 겨울철 김장 나눔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 활동 회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추석 명절에 앞서 수인사 교도들은 지난 9월 18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도희 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불교종지종 수인사 교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시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고 인사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정회 김진아 총무, 수인회 박금화 고문, 신정회 이남이 회장, 중앙동 이도희 동장, 수인회 황갑선 고문, 포항시 김상일 시의원

지혜의눈

서구화의 명과 암

한국의 근대화냐 식민지 수탈이냐의 혼돈 무분별한 수용으로 전통종교 불교의 위축

바티칸박물관에 소장 중인 ‘프리마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상’은 서기 20년경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조각한 작품으로 로마 미술의 손꼽히는 걸작에 해당합니다. 개선장군의 옷을 차려입고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제국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이 흰 대리석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당시 독일 뮌헨대학교 고고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빈첸츠 브링크만에 의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이 채색되었던 사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됩니다. 이전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이 부분적으로 채색된 채로 발굴되었지만 무시되어왔습니다. 왜 고대 그리스 조각이 채색되었다는 사실이 그처럼 부정되었을까요?

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었던 조각상들은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탈색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색상들도 발굴 과정에서 빛과 공기에 노출되고, 흙을 털어내는 청소 과정까지 거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489년 로마시대 대리석 조각으로 가장 이상적인 비례미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아폴로 벨베데레’가 로마에서 색이 다 벗겨진 흰색 조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로마 조각상들은 본래 흰색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이후 조각은 채색되지 않은 흰색 대리석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리스·로마 조각상이 본격적으로 발굴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미술사가 요한 요아힘 빙켈만(Johan Joahim Winckelmann. 1717~1768)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흰 것일 수록 아름답다”라고 언급했고 괴테는 “야만인이나 무식한 사람, 어린이들은 선명한 색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심지어 조각상에 물감 자국이 너무 선명해서 채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그리스가 등장하기 전 다른 문명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여 식민화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들은 견문이 넓어지면서 자신들이 피부가 상대적으로 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을 피부의 색깔을 기준으로 백인과 유색인(有色人)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그리스·로마에서 비롯된 서구 미술이 이집트 등 다른 문화권의 미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흰색 조각상을 그 증거로 여겼던 것이죠. 이제 미술을 넘어 문명화(文明化)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진과 후진, 미개로 구분하여 후진과

미개지역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문명화는 곧 근대화였고 그 내용은 서구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정치와 경제 제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구문명의 내용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구호를 내 걸었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화되자는 이 주장은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하자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20세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국학(國學)이 크게 발전합니다. 일본 전국에 세운 제국대학에 인도철학과 불교를 연구하는 학과를 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서구 사회에 불교를 학문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였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시한 철도와 도로와 항만 건설과 같은 근대적 문물의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인들은 근대화로 인식하는 사람과 수탈을 효

율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본에 협조하여 상대적으로 부와 지위를 차지한 계층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제의 수탈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일반민들은 식민지 수탈론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재빠르게 천미로 변신합니다. 일본의 배후에는 서구 제국주의의 주장이 놓여있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구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자신의 전통을 애써 외면하고 서양문명을 일상의 수준에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통종교인 불교가 심하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일본처럼 자신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가 전통문화를 근대화시켰던 일본과 달리 한국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라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한국은 왜 일본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불에 귀명(歸命)함은 정신적 생명 부처님께 맡긴다는 뜻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2.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組織)과 체계(體系)를 갖춘다.

(앞 호에 이어) 밀교신앙(密敎信仰)은 한가지로 전일(專一)해야하고, 삼보(三寶) 즉 불(佛)과 아사리(阿闍梨)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교의 신앙은 대체로 대일신앙(大日信仰), 관음신앙(觀音信仰), 약사신앙(藥師信仰), 지장신앙(地藏信仰) 등으로 분류(分類)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選擇)해야 된다. 그러므로 밀교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수행이 케도에 오르면 결연관정(結緣灌頂)이라는 의식(儀式)으로 자기신앙대상(自己信仰對象)인 불보살(佛菩薩)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밀교의 전달(傳達)은 자격(資格)이 있는 아사리(阿闍梨)가 면면상대(面面相對)하여 정식으로 수여(授與)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또 옳은 삼밀과 옳은 의계의 밀교를 선택하여 믿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교법의 우열(優劣)을 알고 가려서 믿어야 하며 법신불과 제불보살의 만다라를 믿고 결여한 자기본존(自己本尊)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 인간을 상대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승과 교도는 인간인 이상 때로는 과오(過誤)도 있고 의견대립도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감정이나 증오(憎惡)로 변하여 신앙과 혼동하고 관련지어서 불과 법을 비방하고 화(禍)를 입게 되기 때문에 믿음과 시비(是非), 또는 본존과 인간을 혼동하지 말고 별개(別個)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스승과 마음이 틀리고 교도끼리 감정으로 숭고(崇高)한 자기신앙을 그만 버리고 퇴전(退轉)하는 사례(事例)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금까지 닦아온 공덕(功德)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흔히 본다. 자기의 신앙이 상대자의 시비에 따라 좌우되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곧 자기의 운명(運命)과 이해(利害)를 상대자에게 맡기는 것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이미 패배(敗北)했다는 것이 된다. 상대방이 옳으면 내가 공연(空然)히 과오를 범(犯)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도 그로 인(因)해 내가 희생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란 하나뿐인 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두 개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즉 육체적(肉體的)인 생명(生命)과 정신적(精神的)인 생명이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받아야 하는 무상(無常)한 생명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열반체(涅槃體)인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생명체를 모르고 육체적인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죄업(罪業)을 짓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지니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신앙이 곧 정신적인 생명이고 정신이 건전(健全)할 때 육체도 건전하다. 모든 행복과 해탈의 근본이 이 청정(淸淨)한 자성(自性)에서 올라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忘却)하고 양심을 흐르게 하고 신의(信義)를 저버리고 도덕(道德)을 어기며 사리(私利)만을 추구(追求)하여 공익(公益)을 해친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生存)하지 않는가, 한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 지구도 공전(公轉)하면서 자전(自轉)하지 않는가, 불에 귀명(歸命)한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생명을 부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라 했다. 불자의 신앙은 창조신 내지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보를 향한다. 진리의 길을 몸소 걷고, 열어서 보여 주셨으며, 그 길로 중생을 이끌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연기, 인과, 윤회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못 수행자에게 귀의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스스로를 중심축으로 삼아 자전하듯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되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수행 정진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 본래 자리한 자성으로 돌아가고자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수행의 바탕을 어느 정도 닦은 후 불보살님 가운데 한 분을 따로 신앙대상으로 모신다. 평생을 우리러 받들어 공양하고 따라 배울 자기본존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는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게 한다. 자기본존을 가슴에 모신다면 우리의 믿음과 서원은 훨씬 굳세질 것이다.

스승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지금 현존하는 스승을 만나 공양하고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 티베트 불교를 라마불교라고 부른 것도 철저히 스승을 중심으로 부처님법이 전승되어 온 전통 때문이다.

스승과 제자로 정법이 이어지는 사자상승의 전통은 이심전심, 염화미소의 선택에서부터 강맥, 계맥, 율맥으로 이어져왔다. 선종의 여러 선문답 일화는 마음법이 어떤 과정에서 인가되고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상좌제도도 비슷하다. 은사스님으로부터 수행가품을 배우고 그 경지와 수행 면면을 잇는다. 출가상좌뿐 아니라 재가불자들 가운데에도 스승의 큰 뜻에 믿음을 내고 공양하고 널리 전파하는 유발상좌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밀교에서는 사자상승의 정법 전승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스승과 제자로서 정식으로 인연을 맺는 관정의식을 통해 제자로서의 자격을 인가하고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승받는다.

수행은, 스승이 도의 뿌리임을 바르게 알고 그에 의

지하여 정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리의 스승이자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래스승으로 모시고, 제불보살님 가운데 한 분을 자기본존으로 모시는 데다, 현세에서 근본스승까지 둔다면 수행의 진전은 훨씬 빠를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현세의 근본스승을 더해 사보로 모시고 네 번 절을 올리며, 현세의 스승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데 머물지 않고 ‘부처님으로’ 모신다고 하니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세상일이 그렇듯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역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덕과 지혜를 두루 갖춘 스승이 있어야 하겠지만 훌륭한 스승을 알아보고 제대로 받들어 모실 제자의 존재도 중요하다. 스승에게도 많은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제자 역시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간절한지, 안목은 갖추었는지, 스승을 믿고 가르침을 그대로 행할 준비는 되어있는지, 갖춰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흔히 분만을만한 어른이 없다고 말한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같은 훌륭한 스승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닐까? 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어도 자만에 빠져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 진정으로 스승을 부처님처럼, 혹은 부처님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낸 적은 있는지 돌아본다.

제자가 갖춰야 할 자격을 『대일경』에서는 이렇게 제시했다. “중생 가운데 근기가 뛰어나며, 죄나 과실을 여의고, 이해력이 뛰어나며, 부지런히 노력하고, 깊은 신심을 지니며, 언제나 남을 위하여 기쁘게 힘쓰는 자라야 한다.”

학생도 공부할 해야 궁금한 게 생긴다. 직접 공부하고 수행하다보면 어느 순간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지고, 간절히 묻고 싶은 의문도 품게 된다. 그럴 때 스승의 가르침이 눈을 틔우고 가슴을 파고 드는 법이다.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 곁에 계시는 스승께 여쭙보자.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불자는 오직 깨닫기 위해 매일 정진을 거듭한다

“부처님께서 ‘살생한 죄 참회하라,
도둑질한 죄 참회하라, 사음한 죄 참회하라,
거짓말한 죄 참회하라, 우치한 죄 참회하라’ 고 하셨듯이
스스로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 『화엄경』에 이 세상 만
류를 다 스승 삼아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
는 사람 뿐 아니라 형상이 있는 것에는 다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
면 과거의 허공이나 현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허공은 변함이 없고 가는 것도, 오
는 것도 없고 생사도 없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도 또한
저 허공의 바탕과 같다는 것입니다. 태양에
서 밝음을, 산에는 동요함이 없는 부동자세
를, 초목과 초립에는 굳은 절개를, 물에는
유연함과 청정함 등 백만 가지를 배울 수 있
습니다.

이 법은 본래의 무생한 도리를 우리가 비
로소 알고,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
만 그 가운데서 인생답게 보람되게 살다 가
신 분은 몇 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자기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 나아가
야 합니다. 자신 마음자리가 우주의 진리이
니 자기의 마음자리를 스스로 믿고 행하러
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믿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나
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항상
겉으로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처

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이나 되느냐 살펴보면 몇 사람 안 될 것입니
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됨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남
의 허물을 훑보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뉘우
치고,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생한 죄 참회하라, 도둑
질한 죄 참회하라, 사음한 죄 참회하라, 거
짓말한 죄 참회하라, 우치한 죄 참회하라’고
하셨듯이 스스로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학교도 교육자도 지도자도 또한 필
요 없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하므로 교육
자도 배우는 자도, 스승도 제자도, 종교인도
다 있는 것이지 미리 다 완성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완성되
지 못한 정한 이치입니다.

둘째는 불교는 독선이 아니라 겸손입니
다. 서원당에서 하루 종일 수행정진 하는 것
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중생교화 하려는 겸
손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한 가지를 알면 한 가
지를 가르쳐 주고, 두 가지를 알면 두 가
지를 가르쳐 주고 내가 모르거든 아무것도 모
른다고 자칭할지언정 남에게 모르는 것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믿고 양심의 가책없이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번째 문제이다.

거짓으로 안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
니다. 모르면서 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한
봉사가 다른 봉사를 이끌어 불구덩이에 들
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잘못하여 여러 사람
을 도탄에 빠지게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다고 하여 서원당에서 혼자 수행 정진하는
것을 두고 독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중에 많은 중생들을 구하려고 겸손하게 도
를 닦는 것입니다.

셋째, 불교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항상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
고 불문 문중에 들어오면 동일계급입니다.
속세에서 유명했던 부자였던 간에 불가에
서는 계를 받은 순서로 선참, 후참을 정하고
동일한 도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별이 아니라 평등인 것입니다.

넷째,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신
앙이며, 자력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의 힘을 빌려 해탈하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
려고 하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래 살고자 하면 죽어 가
는 목숨을 살려 주어라. 만 사람의 위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만 사람의 발 아래로 하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항상 화합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교화해서 착한 사람 만
들어 세상에 내보내고 악한 사람 그대로 내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
님의 자비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보다
는 남을 위하는 생각이 견고했을 때 이 세계
는 밝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
을 듣고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이 없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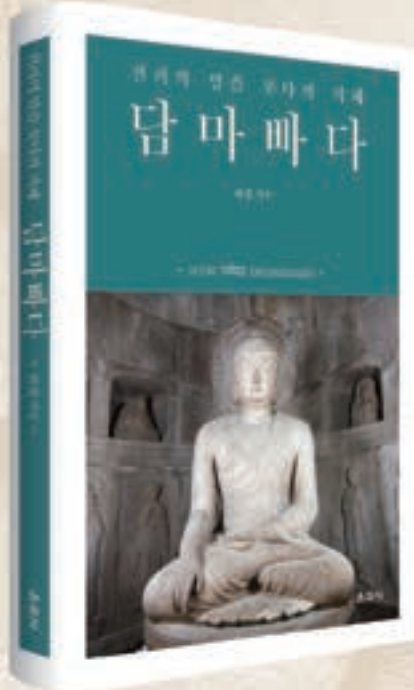
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피해는 입히지 말
아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나
가려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 헌신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
다. 나 혼자만 많이 벌여 잘 살려고 하면 부
자가 못 됩니다. 헌신 보시하는 것이야 말로
복덕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력
하는 것 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계속 전
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인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각 어
리석었을 때는 우리가 중생이었습니니다. 그
러나 지금이라도 당당한 생각, 한 생각을 깨
달으면 그것이 성불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
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지 말고 행하십시오. 틀림없이
성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세의 행복은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총기 32년 3월 이달의 설법문안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파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파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진각종 초대 사감으로 현대 밀교의 앞날에 나침반이 되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4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청렴정직하고 스승을 잘 받들어 행하면 다른 자격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교화는 잘 될 것이다. 종단은 민주주의나 어떠한 법조 문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라 스승과 제자, 수행을 이끄는 이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모범을 세워야 크게 일어설 수 있다.

헌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 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이 스승과 위사람을 경멸하고 맞서 다룬다면 어찌 아랫사람과 교도들이 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스승의 도리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줄곧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흔들리는 교단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 끝에 세상 의혹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신흥종교의 비리 의혹사건으로 알려졌던 심인불교 사건은 결국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회당 대종사의 무죄로 판결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새 종단에 대한 세상의 기대도 커졌다.

1956년 4월 2일, 경북애국단체 연합회에서 진각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대중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진각종에서 두 분의 원로 스승과 함께 대성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 대성사의 종단 내 입지가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외적인 활동을 맡기 위



사진 자료=진각종 70년사 중 1956년 11월 3일 '애국단체연석회의 참석'

“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회하는 마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며 인간만의 고유한 성질이다.

”

해서는 위상에 걸맞는 인물이 나서야 했다. 새로운 종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인품과 경험이 필요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더욱이 사회 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골라야 했는데, 대성사는 진각종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인격과 종교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대성사의 국가관은 항일운동과 망명생활,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다른 애국 정신이 심지가 되어 있으므로 전후 사회의 안정을 돕기 위해 종교인으로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성사는 종교인

으로 정치에 몰입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애국과 중생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적 자아를 넘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수행관이 민주주의와 통한다고 믿었다.

“정치와 종교는 마치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도 같다. 국법에는 죄는 벌주고 종교는 착한 일을 권해 선행은 선한 과보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알게 되면 악행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 모두 선으로 이끌어 간다. 그 관계는 음양의 원리가 서로 겹쳐 안으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 일마다 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의심道義心을 크게 일으켜 국민을 더불어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종교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는 정치로서 그 자유를 주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스스로 이끌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보아 크게 보더라도 종교는 자유세계를 정신적으로 묶어가니 마음으로 부터 전 세계가 하나 같이 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국민정신과 민족사상은 비록 다를지나 오직 신앙하는 종교적 이념만은 공통적이다. 생활풍속은 각각 다르지만 신앙 생활과 윤리감은 같은 까닭이다.”

모든 송사가 마무리되면서 진각종은 다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된다. 회당 대종사는 1956년 10월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포교 전법에 나섰다. 종단 전체의 일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 일은 많으나 경륜은 부족한 때에 대성사의 경험 이 빛을 더했던 시기이다.

진각종은 초기부터 밖으로 교육사업과 사회구제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전쟁 후의 혼란 속에 종교가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행정 체계를 만들고 교학을 세우는 일도 시급했다. 이런 안팎의 일들에 대성사의 힘이 필요했는데, 오랜 공직과 교육 현장의 경험은 진각종의 진로에 큰 역량이 되었다.

서울로 종단의 기반을 옮긴 후 1956년 대성사는 회당 대종사가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심인당의 스승으로 봉직하게 된다. 현재 밀각 심인당인 왕십리 교당은 진각종의 서울 진출의 기반이 된 곳이다. 진각종은 초창기 각종 업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만들며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재단 회칙으로 사감(查監)이란 직책을 만들게 된다. 종단 전체를 살피고 감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리였다.

1956년 12월 11일 대성사는 진각종 초대 사감의 직책을 맡는다. 평생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마음을 내지 않고 정대하게 처리했던 성품에 꼭 맞는 직위이며 종단이 앞으로 빠르게 나갈 나침반의 역할이었다. 사감 직책은 후일 감사 기관인 사감원(查監院)으로 확대된다. 초기 종단에 꼭 필요했던 사정 업무의 기틀을 잡는 것이 대성사의 소임이었다.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종단 전체의 살림과 계율 등을 살펴야 했고, 대성사는 제기된 불평과 불만을 공명하게 처리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종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성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못이 있으며,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회라고 하였다. 그것이 참회원으로 출발한 종단의 취지에도 맞다고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단죄나 처벌이 아니라 참회하고 자기 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그 원칙을 종단의 사감 업무에 그대로 적용해갔다.

“선악의 판단은 결코 전통적인 교육의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의식 속에 판단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회하는 마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며 인간만의 고유한 성질이다.

금수禽獸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만 있는 자는 배운 지식을 악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든다. 거짓으로 선함을 가장하여 위선으로 진실을 감춘다.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 된 후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라면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사감의 역할로서뿐 아니라 스승과 교도들의 잘못된 일과 실수를 대하는 대성사의 가르침은 초기 종단의 불협화음을 바로잡는데 큰 힘이 됐다. 종단이 외형적인 틀을 잡아가면서 내면적인 골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생겼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총지 사원, 수련원 건립의 시작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 사원 확대를 통한 교세 확장

밀교의 가르침을 만방에 펼치기 위한 사원 확대에 가일층 열과 성이 더해졌다. 새로운 지역에 신규 사원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고 여법한 종단 소유의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를 매입하고 종단 양식에 맞춰 사원을 건축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했다.

1980년 10월 28일 대구시 만촌동에 북혜서원당(주교: 정정심 전수)을 개설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64-5의 공사를 마무리한 관음사는 11월 12일 헌공불사를 거행했다. 법등서원당은 11월 13일 경주시 구정동 389-17에 건물을 신축하여 승천사 헌공불사를 거행하고, 응신서원당은 11월 19일 2층 건물로 확대 이전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으며, 12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시복서원당(주교 상지화 전수)이 문을 열었다.

자재서원당은 1981년 3월 26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3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법성사로 개칭했고, 정각사는 4월 1일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의 대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다. 불공에 참여하는 교도들의 교통 편의와 쪽주하는 교화업무를 위해 미니버스 1대를 구입하여 부산 전역을 누빌 정도로 부산 지역의 교세는 불꽃처럼 번져갔다. 정경서원당은 4월 17일 울산시 태화동 31-21에 실보사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했고, 밀행사는 5월 2일 밀양읍 내이동 701-11에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했다. 광혜서원당은 8월 27일 마산시 추산동 73-25에 대지와 주택을 매입 수리하여 운천사로 개칭하고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9월 25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1가 122-1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삼밀사(주교 신향각 전수)가 교도들을 받기 시작했고, 10월 29일

자석사의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헌공불사를 거행했다.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5-17에 대지를 매입한 실지사는 1982년 4월 1일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고, 건화사는 4월 23일 경북 월성군 안강읍 양월리 1138-3에 사원 신축을 시작했으며, 5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325-2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덕화사(주교 하정 정사)를 개설했다.

그 사이 전당 신축공사가 속속 완료되어 1983년 4월 26일 수계사, 27일 건화사, 28일 법성사, 29일 밀행사 헌공불사를 연이어 거행했다. 11월 15일 실보사 헌공불사를 거행하고 11월 16일 전남 광주시 금동에서 원덕서원당(주교 법수원 전수)이 총지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1984년 9월 11일 밀인사 예정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원덕서원당은 개설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9월 20일 전남 광주시 서구 구동 29-18 주택을 매입하여 법황사라 개칭하고 본존봉안불사를 거행했다.

1985년 4월 9일 경북 영천군 완산동에 인덕서원당(주교 일신행 전수)이 문을 열고, 4월 10일 진주시 장태동에서 선지서원당(주교 법성 정사)이 교화를 시작했다. 수인사, 법황사, 정각사, 만보사가 신축을 위해 대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10월 20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밀인사 신축을 마무리하여 신축헌공불사를 거행했으며 실지사는 12월 20일 수유동에서 미아동 133-9로 이전했다.

1987년 2월 10일 선지서원당의 이전을 위해 진주시 망경북동 9-3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시복서원당은 4월 14일 성남



집중수행도량 중원사의 옛 모습 괴산수련원

시 하대원동 133-4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준공하여 법천사로 개칭하고 헌공불사를 거행했다. 실지사는 4월 17일 옥상에 원상을 갖추고 사원의 면모를 일신하여 이설불사를 거행했으며, 건물개보수를 완료한 선지서원당은 8월 25일 화음사로 개칭, 이설불사를 거행했다. 지인사와 운천사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10월 20일 청주시 내덕동 651-1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혜정사 건축을 완공하여 헌공불사를 거행했다.

성화사, 벽룡사, 만보사의 신축과 확장을 위한 대지 매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1988년 9월 29일 충무시 복신동에 상락서원당(주교 정법계 전수)을 개설하고, 11월 3일 성화사 이설불사, 11월 4일 운천사 헌공불사가 거행했다. 원정 대성사가 백일 정진 후 교화를 시작한 상봉동 응신서원당은 12월 27일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15-27로 이전하여 정심사로 개칭하고 총지종 첫 교화지로서 위용을 갖췄다. 1988년 10월 25일 사원 건축 양식을 기와지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만보사 신축부터 기와지붕양식을 도입했다.

1989년 5월 16일 북혜서원당이 제석사로 개칭하여 증개축공사를 시작하고, 5월 17

일 만보사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며 9월 22일 상락서원당 설단불사를 거행했다. 1992년 9월 29일 만보사의 3개 동 건축이 완공되어 헌공불사를 봉행하고, 10월 28일 종의회에서 부평에 정혜서원당(주교 대자행 전수)을 개설하기로 결의했다. 1993년 2월 15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09-1에서 삼밀사가 건축을 시작했고, 5월 12일 인덕서원당이 단음사 신축부지로 경북 영천시 성내동 180-7의 대지를 매입했다. 1994년 새해 벽두부터 정각사 신축공사에 돌입하고 타종교인의 반대로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었던 삼밀사도 공사를 재개했다. 10월 28일 정혜서원당 설단불사와 지인사 지진불사를 거행하고, 상락서원당은 통영시 무전동 979-63으로 이전하여 단향사로 개칭했다.

“총기 15~16년까지는 시간마다 다르고 날마다 달마다 달랐으니까요. 요원의 불길 같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헌공불사만 서너 곳을 가야 했어요. 땅 보러 가고 건물 보러 가고 건축 계획 세우고 진택불사, 헌공불사 드리느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지요. 그동안 다들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서원당을 종단 사원으로 딱 하니

완공했을 때는 가슴이 벅찬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불교총지종 50년사 인터뷰, 지성 정사>

그야말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진언불공의 가피력으로 일군 도량이였다. 대성사를 모시고 전국 곳곳에 사원을 세울 때와 한 치도 다름없이 도량불사에 원력과 정성을 기울여 9개의 신규 사원을 개설했다. 서원당을 종단 소유의 여법한 사원으로 건설하기 위해 너나없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이로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주요 지역을 망라해 총 36개의 총지 교화도량을 확보했다.

교도가 늘고 사원이 확대되면서 종단 규모에 걸맞는 집중수행공간 및 신앙과 휴식을 겸하는 제2의 본산 건립을 추진했다. 부지를 물색한 끝에 1984년 12월 31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의 임야를 시작으로 인근의 부지를 꾸준히 매입하여 1988년 3월 10일 불교총지종 수련원 건립을 시작했다. 이후 각종 시설을 확충하여 학생수련법회와 경로수련법회 등 종단의 주요 수련법회공간으로 활용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수	일
토	일
점	점

9시 30분 ~ 18시 30분

야간진료 20시 30분

9시 30분 ~ 14시

13시 ~ 14시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청천 푸르지오 아파트 2층
이마트24
베스킨라빈스
새마을금고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준제진언의 수용과 『범서총지집』

한국밀교는 최초 기록으로 신라시대 삼기산에서 시작되었고, 신라시대 크게 꽃 피웠으며, 고려시대 밀교는 역사, 문헌, 수행, 의례, 종파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밀교의 중심이자 번영을 구가하였다. 조선 초 밀교가 절멸할 때 일본은 조선왕에게 밀교대장경을 구했고 본국에 가져간 후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밀교대장경은 이름 모를 사찰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한국불교의 전승 가운데 준제진언은 과거 고려밀교의 위상을 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 말하고 싶다. 특히 원정대성사께서 준제진언을 전승토록 한 것은 총지종의 중심을 과거 고려 밀교의 무대였던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도록 고려한 혜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준제진언의 위상과 유행을 이해하려면 고려불교를 이해해야 한다. 연구의 선구자로서는 서운길 교수가 고려시대 밀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밀교연구를 주도하였고, 이후 강대현, 강향남, 김수연, 옥나영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김수연박사는 고려시대 밀교의 전적 가운데 하나인 『범서총지집』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려시대의 밀교전적 연구는 요(거란)의 대장경 수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요는 당시 모든 불교경전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교전적을 보충, 수집하였고, 밀교승들의 적지 않은 주석이 그 이름을 전하고 있다. 각원은 『대일경의석연밀초』에서 『화엄경』과 『대일경』을 대등한 반열에 올려 놓고, 양경전의 차이를 현원(顯圓)과 밀원(密圓)이라 평가하였다.

『팔대보살만다라경』의 장소를 저술한 사효와 지실도 있었는데, 이것은 불



공에 의한 밀교의 정토수행을 주석한 것으로 고려시대 유행한 정토의 밀교수행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불교는 요와 원, 티베트를 아우르는 복잡한 외교관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불교의 판도를 유연성 있게 주재하였다.

고려시대 준제진언과 관련해 고려 외의 문헌으로는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들 수 있고, 고려 내의 저작으로는 『범서총지집』이 있다. 김수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범서총지집』은 7종 이상의 판본이 있으며 모두 고려시대 조성된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가운데 발견되었다.

특히 해인사본 『범서총지집』은 각각 1156년과 1166년 고려 의종 연간에 조성되었으며, 민영규가 기증한 연세대 소장 『범서총지집』은 고종 5년(1218)에 간행된 것으로 서문에 『연밀초』와 준제진언을 언급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인용이 보인다. 진언의 수집은 신라시대 이미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성여왕 9년(895)의 「백성산사전대길상탑중납법집기」에

는 탑 안에 『진언집록』 2권 등을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원류는 방산석경 가운데 행림이 집록한 『석교최상승비밀장다라니집』과 유사한데 양 저술의 연대 차이는 불과 3년을 넘지 않아 신라밀교와 당 밀교의 교류가 긴밀했던 중요한 흔적이라 볼 수 있다. 불가사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선무와, 금강지와 불공, 지바가라에 의한 준제진언류 다라니경의 역경이 존재해 준제진언을 준제보살 중심의 별존행법을 넘어 양부 수법으로서 중요한 출세간 선정으로 활용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진언이 『범서총지집』에 수용된 것은 준제진언의 한국불교로의 진정한 토착화의 계기라고 할 수 있기에 그 가치를 진중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범서총지집』의 서문에는, 다라니의 수승함과 다라니에 대해 선정장(禪定藏)으로 활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정장으로서 다라니를 수용한 풍도는 신라시대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자제법소』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준제진언 정진을 다룬 별본을 조성하고 부제로 현밀쌍행(顯密雙行)이라 이름하였으나 현대 후손들이 연구가 부족해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근현대 융성의 육자대명왕진언 염송과 성철의 아비라기도는 멀리 신라와 고려로부터 전해진 선밀겸수의 명백한 전승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서 화엄, 천태, 정토, 밀교, 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밀교가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현대 불자들은 새로이 자각해야 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4>
With Dharma

나를 바꾸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더 빨리 멀어져 간다. 따라 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도저히 시간을 앞질러 갈수가 없다. 내년이면 나도 50살이 된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흘러간다. 10살 때는 1년이 자기인생의 10분의 1만큼의 속도로 지나가고, 50세 때는 1년이 자기인생의 50분의 1만큼의 속도로 지나간다.

나는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아는 것도 많고, 보다 바르고 현명한 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몸의 변화만큼 정신적인 변화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내 몸은 벌써 50세가 되어가지만 정신과 마음은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각사에 있을 때 동해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학생들을 보고 든 생각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중학교 시절에도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중학생이 40대 후반의 가치관을 가지기는 어렵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고기를 먹일 수 없다. 아이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젖과 이유식을 잘 먹여 잘 성장시키는 것이다.

옛말에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늙으면 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인 상태로 늙은 것이 맞을 것 같다.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보단,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만큼의 각고의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절할 만큼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방치시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은 근기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자고 있는 불성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자기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자기반성을 불교적 용어로 표현

하면 참회가 된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으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타인을 상처 입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참회는 그 상처와 고통을 처절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날 뿐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하면 샤워를 하고 곧바로 나왔을 때 사람에게서 풍기는 신선한 비누 향처럼 그런 싱그러운 향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씻는다는 것, 깨끗이 한다는 것, 아니 내가 더럽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몸에 때가 낀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수시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 때가 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한 순간도 자신을 방치시켜선 안 된다. 나를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아차리고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강	공	회		이			개	천	절
감				동	해	중	학	교	세
찬	불	가		타			기		미
		거		산			념		인
오	순	도	순		구	사	일	생	
세				개	척			택	
대	자	대	비		장	구		취	
제		외		정	신		스	패	인
도	깨	비		당		황		리	
				가	화	만	사	성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인터뷰 / 총립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복지 학교로”

제42회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9월 1일부터 신임 교장에 중임된 총립 부산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을 만났다. 송 교장은 2019년도 처음 교장으로 봉직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철학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복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실 교육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왔습니다. 4년

간 교원 복지에 신경을 써왔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송 교장은 다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만 해도 2학년 학생이 한국과학영재고에 합격해, 조기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 왔으며, 지난해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앞의 낡은 교사를 해체해 아이들이 창을 통해 햇빛을 받고 운동장을 내다보며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기

이 같은 송 교장의 의지와 실천은 제42회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이

어졌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교장은 이미 2013년부터 진로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진로지도와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부산 진로교사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수상은 이 같은 성과에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부분도 상당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송 교장은 또 정장스타일 자켓의 교복 상의를 점퍼와 후드집업으로 전격 교체하면서 청소년기에 불편한 상의를 생활복화 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교복으로도 손꼽히며, 동해중 학생들은 자연스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

“새로운 것을 하기 보다는 처음 가진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던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 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2026년 2월 말 본인의 퇴직일까지다. 앞서 4년 보다는 짧지만 여운이 더욱 오래 가는 학교 운영을 기대해 본다.

김양희 지휘자, ‘만다라 아트 명상’ 클래스

총지사, 이달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픈



2006년부터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의 지휘자로, 성악가, 예술 활동가로 불교계에서 명망이 높은 김양희 지휘자가 이번엔 아트 명상가로 변신해 클래스를 연다.

서울 총지사에서 교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여는 ‘만다라 아트 명상’은 김 씨가 2년 넘게 정진해오며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따라 수업을 열게 됐다. 김 씨는 총지종과 인연 맺어온 감사의 마음을 회향하는 시간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만다라 명상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원하는 모양을 그리며 본인이 선택한 색상도 다 이유가 있고 컬러에 따라 마음이 나타

납니다.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며, 자각과 인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매주 목요일 1시부터 4시까지(주 3시간) 기초반 3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취미반은 1년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선과 색을 이용한 그리기, 칠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 만다라 작품의 모작에서 시작해 비즈, 과일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다라 아트 장작을 점차 늘려나갈 방안이다.

“아트 명상 작업을 통해 제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삶에 많은 도움과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매주 화요일에는 마니합창단 지휘자로, 목요일은 아트 명상 지도자로 우리 곁에서 소리로 빛으로 맑고 밝게 드리워질 예정이다. 동참문의 02-552-1080



오도 일관지의 자세 (吾道 一以貫之)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듯 인간이 마음속에 큰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것은 바로 인생의 출발점이지요, 삶의 행로를 지향하는 좌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크면 클수록 실패의 양 또한 당연히 많게 되고, 좌절의 무게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타인보다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한 말 중에 오도 일관지(吾道 一以貫之)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의 길은 하나의 원리 하나의 사상으로 일관한다는 의미이다. 즉, 시종일관(始終一貫)하는 태도, 전후여일(前後如一)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인간이 가는 길은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다는 이 말은 어떤 정신으로 일관하는 것이요, 어떤 사상과 지조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다.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정의의 위해서는 몸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의(義)에 살고 의(義)에 죽는다.”는 선인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분야가 문학이건, 예술이건, 사업이건 간에 큰 성공의 비결은 처음 세운 뜻, 처음에 품은 생각에 맞추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강물도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바다에 이르고, 사람도 자신의 일에 시종일관(始終一貫)하기 때문에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의지를 갖는 존재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고, 뜻있는 행동을 하고 싶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는 존재이다. 우리가 뜻을 이룰 때 인간은 삶의 보람을 느

끼고, 생의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강화해야 한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쉬지 말고 자신을 강하라.”는 자강불식(自彊不息)이라는 말이 있다. 먼저 우리는 몸을 강하게 하고 다음에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몸이 약하게 되면 자신의 본분은 물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인생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고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력 강화는 삶의 기본 지표이자 교육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건한 체력적 바탕 위에 이룩된 건전한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갖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워나가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길이 있는 곳에 보람이, 보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만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에 이르는 첫걸음은 먼저 뜻을 세우는 데 있다. 인생 벽두에 제일 중요한 일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사람은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자질구레하고 편협된 생각을 털어버리고 순수하고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큰 뜻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사람이란 큰 뜻을 가진 사람이지요, 위대한 민족이란 큰 뜻을 가진 민족이다. 사람들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옛 선현들께서는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 했다. 즉 뜻이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이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찾아오는 가을에는 풍요와 건강이 함께하는 10월이 되길 소망해 본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9/15	50,000
관성사	우인	8/21	10,000
	보명심	8/22	10,000
	김병석	9/3	10,000
	김병석	9/17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8/21	20,000
	수증원	8/21	10,000
	밀공정	8/21	10,000
	선도원	8/21	10,000
	법지원	8/21	10,000
	일성혜	8/21	10,000
	사홍화	8/21	10,000
	안주화	8/21	10,000
	진일심	8/21	10,000
	시각화	8/21	10,000
	최상관	8/21	10,000
	연등원	8/21	10,000
단음사	자선화	8/21	10,000
	승효제	8/21	10,000
	해정	8/28	10,000
	해정	8/29	10,000
단음사	해정	9/14	10,000
	장정숙	8/21	10,000
	하현정	8/21	10,000
단음사	신말심	8/21	20,000
	장정숙	9/15	10,000
	신말심	9/15	20,000

덕화사	법상인	8/22	20,000
동해사	법선	8/21	10,000
	김진화	9/1	10,000
	송인근	9/18	10,000
	김경희	8/21	10,000
만보사	강명순	9/1	10,000
	홍도열	9/7	10,000
	이종구	9/11	7,000
	김경희	9/19	10,000
밀인사	덕광	9/11	20,000
법천사	반야심	8/31	10,000
법황사	인선	8/21	10,000
	정계월	8/21	10,000
	인선	8/22	10,000
	정계월	8/22	10,000
벽룡사	승원	8/21	10,000
	묘원화	8/21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9/4	80,000
사원명무기명	하영순	8/25	10,000
	강숙자	9/10	10,000
	박필남	9/15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정운영	8/25	10,000
	박현정	8/25	20,000
	나석원	8/26	50,000

세곡 키움센터	김경희	8/31	20,000
수인사	법상	8/22	20,000
시법사	해광	9/10	10,000
	이순영	9/10	20,000
실보사	이순옥	8/30	10,000
	박성호	8/30	10,000
	혜원정	9/13	10,000
	서경	9/13	10,000
실지사	황성녀	8/28	10,000
	유승우	9/12	10,000
	이도현	9/12	10,000
	이서현	9/12	10,000
	이루나	9/12	10,000
	이서유	9/12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8/25	8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8/28	8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8/25	80,000
	구미자	8/31	10,000
	구미자	8/31	10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8/28	80,000

정각사	진여	8/25	10,000
	김정남	8/28	20,000
	노점호	9/12	10,000
	탁상달	9/13	10,000
제석사	안한수	9/10	10,000
	이진승	8/31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9/4	80,000
총지사	김정환	9/8	10,000
	백귀임	9/11	10,000
	최영아	9/11	10,000
	신현태	9/13	10,000
	유은혁	9/18	10,000
통리원	김평석	9/12	1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8/28	80,000
화음사	무명씨	8/30	10,000
	강동화	8/31	10,000
	무명씨	9/4	10,000
	무명씨	9/6	30,000
	박옥자	9/11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9/11	8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⑨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관세음보살과 생명 이야기

무지하여 많은 생명 살생한 일, 반성하며 절합니다.
놀이삼아 여러 생명 괴롭힌 일, 반성하며 절합니다. <환경명상 절 108배 중>

정찬주 작가가 편역한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있다. 원전은 『행산보권』으로 『관음전』 또는 『관세음보살본행경』이라 불린다. 가섭불 시대에 홍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연호는 묘장이고 국왕은 파가, 왕비는 보덕이었다. 보살은 셋째 공주로 태어났다. 이름은 묘선이다. 책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묘선은 짐승과 꽃나무들을 사랑하였다. 국왕이 사냥하여 가지고 온 다친 사슴을 몰래 치료하여 놓아 주기도 하고, 정원으로 나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등 계절마다 꽃들을 손수 키워 꽃향기가 일년 내내 왕궁에 퍼지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도 묘선의 사랑을 받았다. 땅속의 벌레들이 다칠까 봐 뜨거운 물, 찬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였으며, 개미들이 자신의 발에 무심코 밟힐까봐 함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였다. 어느 때인가는 숲에서 어미 새를 잃고 시름시름 죽어 가는 새끼 새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공주는 정성을 다해 모이를 주며 힘껏 돌보았지만 새끼 새가 죽자 눈물을 흘리며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기도 하였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묘선 공주가 후일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 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비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다. 어릴 적에 무심코 생명을 죽이고 놀이 삼아 괴롭힌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환경명상절 108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16. 무지하여 많은 생명

살생한 일, 반성하며 절합니다. 17. 놀이삼아 여러 생명 괴롭힌 일, 반성하며 절합니다.’

도시화 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에 둘러 싸여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하느라 쉴 틈이 없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기 자신조차도 돌볼 시간이 없이 지낸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치 않고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불러온 참상이다. 강에 보를 세워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수심이 깊어져서 얕은 물가에서 살던 물고기나 조개, 게 등이 살 수 없게 되고 모래톱이 사라지면 새들의 서식지도 사라진다. 그리고 갇힌 물은 썩어서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만다.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고, 녹조물로 농사를 지으니 무, 배추 등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 바다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이 사라지자 갯벌에서 살던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어민들과 수산업종사자들이 생계수단을 빼앗겼다. 세계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청소년 축제인 잼버리도 이러한 장사속에 망쳐버렸다. 생태가치가 높아져 보호하자고 나라가 정한 국립공원에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한다. 멸종위기 산양이 살고 있는 설악산에도 케이블카를 놓고 만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도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2년 전 지진과 해일로 인해 폭발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무해하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이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에 제소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의 잘못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일본은 30년간이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거라고 한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몰라도 계속해서 쌓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의 어민들도 반대했고,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로 벌써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민들과 수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염려가 크다.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에 사는 못생명들이 인간에 의해 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린 관세음보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일 8시간이상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금은 불교기후행동에서 이어서 하루 1~2시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바다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다. 생명을 사랑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게 외친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생명의 어머니인 바다를 지켜달라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바다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천수천안 대자대비 구구난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도 생각해서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차갑거나 뜨겁지만 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못생명이 사는 바다에 버리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무소유



저자 김세중
판형 양장본 304쪽
출판 스타북스
가격 18,000원

스타북스는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년을 기리며 ‘무소유’의 양장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두 분 스님의 삶에 녹아있는 무소유의 정신과 철학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무소유’ 출간 30만 부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무소유 향기’를 함본으로 새롭게 편집해 고급 양장본으로 펴냈다.

이 책은 두 분의 삶에서 진하게 우리나라의 지혜와 정신, 아름다운 말씀들을 친절하고 간결한 문체의 잔향을 담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저자는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화두를 던지시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불교계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두 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소유 정신이 널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표지 사진을 찍은 장남원 작가는 드라마 ‘우영우’에 나오는 고래의 사진작가로 화제를 모아 익숙하다. 장 작가가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스님과 중생들과의 사이에 다리가 되겠다고 온 법정 스님을 만났다. 작가가 당시 성철 스님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찍게 된 에피소드는 책의 본문 마지막 에필로그에 소개하고 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스님의 설법과 글들로 수많은 중생이 위로받으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법정 스님! 스님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자비의 하얀 연꽃으로 피어나시고 부처님의 미소를 담은 등근달로 떠오르십시오.”

이해인 수녀의 법정 스님 추모 글



불교서적 월간베스트(9/1~30)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도법스님의 신심명 강의	불광출판사	도법
2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담앤북스	정현/서주
3	딱돌해설서	금빛소리	중앙선해 역저
4	철학으로서의 불교 (대원불교 학술총서09)	운주사	마크 시더리츠
5	선에서 본 반야심경	불광출판사	대전화상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청우당	김원수
7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우리출판사	정진원

화음사 교도 광고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제14회 한국리스트콩쿨 최연소 대상 수상

총지사 신정희 최영아 회장 외손녀, 이시연 양

한국 피아노 콩쿠르계의 새 역사가 써졌다. 지난 9월 한국리스트협회가 주최한 2023 제14회 한국리스트콩쿨에서 초등 2학년 부 이시연(8세) 양이 최연소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이시연 양은 총지사 신정희 최영아 회장의 외손녀이자 한국 바둑의 전설 이창호 9단의 차녀다. 언니가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것을 보고 관심이 생겨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일찍이 남다른 음악성을 드러냈다.

이번 수상으로 이 양은 헝가리 국립리스트음악원 유학 시 6,500유

로 상당의 1년 전액 장학금 수여 및 150만원의 여비 지원의 혜택을 받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Liszt Concert Hall 초청 독주회’와 ‘주한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초청 독주회’ 및 ‘KAWAI 초청 갈라콘서트’ 개최 연주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리스트콩쿨의 전체 대상은 성인을 포함한 일반부에서 12회, 고등 3학년부에서 1회 등 연장자들 가운데서 나왔기에 이번 수상은 매우 특별하다.

이 양은 수상소감에서 “선생님은 늘 저에게 당당하게 무대를 즐기고 오라고 하시고, 부모님은 결과보다

연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가르침과 조언으로 매일 즐겁고 성실하게 피아노를 통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영아 교도는 “결과 발표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제 손녀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부처님 전에 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양의 아버지인 이창호 기사 또한 최근 울산에서 열린 ‘2023 울산광역시장배 전국바둑대회 프 로시니어 최강전’ 결승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이로



써 2010년 제53기 국수전 우승 이후 13년 만에 개인 통산 141번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삼미 기자



추석맞이 두뇌장사선발대회 개최

지역 어르신 200여 명 초청, 푸짐한 선물도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하여, ‘제4회 두뇌장사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두뇌장사선발대회는 작년 우승자로부터 왕관을 반환 받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50여 명의 퀴즈대회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두뇌경쟁을 펼쳤다. 치열한 경합 끝에 최후의 두뇌장사는 서북희(70세) 어르신이 선정되어 인증서와 왕관을 수여하였고, 상품으로 준비한 안마기를 직접 전달하며 우승을 축하했다.

나석원 센터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평생학습 콘텐츠에 재미를 더하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02-957-9923)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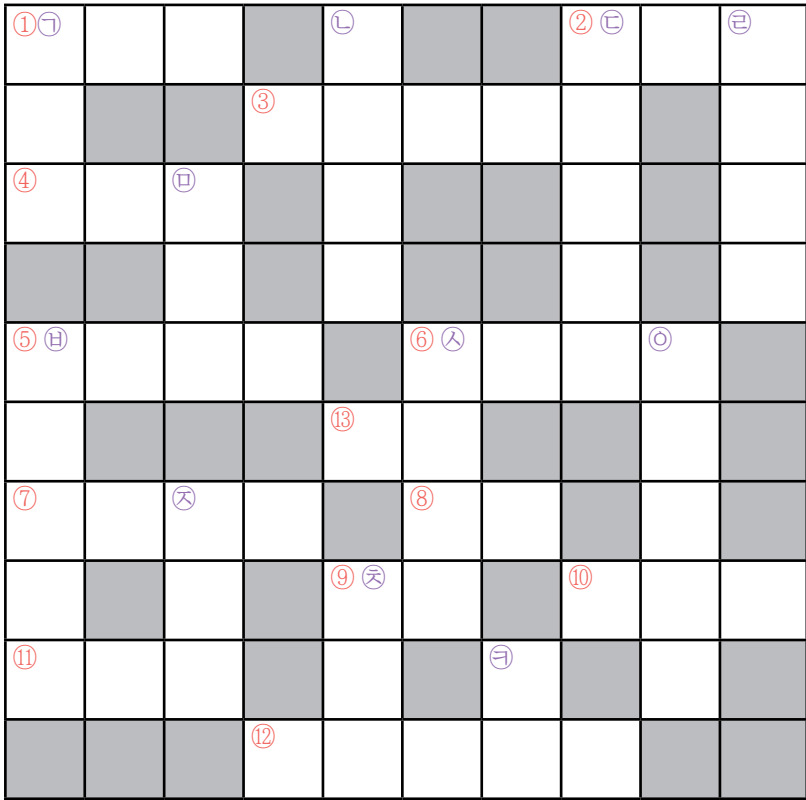
제14회 경로법회 보시

신정희 서울경인지회, 신정희 충청전라지회
신정희 대구경북지회, 신정희 부산경남지회
관성사 신정희, 박병석 교도, 무상회사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 ①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씩 종단의 승직자들이 모여 수행을 점검하는 큰 행사
- ②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 ③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불교총지종 총림 중학교
- ④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 불교가요의 총칭
- ⑤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 좋게 지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⑥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을 이르는 말
- ⑦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
- ⑧ 허리가 잘록한 통의 양쪽에 가죽을 붙인 국악에서 빠질 수 없는 타악기의 하나
- ⑨ 육체와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 ⑩ ‘마드리드’가 수도인 무적함대로 대표되는 국가
- ⑪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방망이를 든 귀신
- ⑫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
- ⑬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음

세로 열쇠

- ㉠ 귀주대첩의 신화를 만든 고려의 명장이자 영웅
- ㉡ 이로움과 해로움을 이리저리 따져 헤아리는 일을 뜻하는 말
- ㉢ 학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날
- ㉣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 신라 장보고가 ‘사람이 가히 살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국내 최서남단에 있는 섬
- ㉥ 총지종 불공의 공공서원으로 다섯 세대에 걸쳐 부처님의 법을 제도하는 것
- ㉦ ‘아홉 자나 되는 큰 키’라는 뜻으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을 이르는 말
- ㉧ 프랑스의 작가이자 공군장교이며 ‘어린 왕자’의 작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
- ㉨ 외부에 비밀로 함, 또는 그 비밀
- ㉩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
- ㉪ 중국 내용골 고원과 고비 사막 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래 폭풍과 흙먼지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인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부산경남교구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충청전라교구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시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경로법회 사원 장기자랑

오늘은 좋은날 모두가 하나된 날



총지상(1등)

정각사



만보사



반야상(2등)

덕화사



성화사



수인사



원력상(3등)

혜정사



개천사